

글로벌 물류산업 동향

Global Logistics Industry Trend

2025. 4. 17

Contents

■ 이슈

'2025 신흥시장 물류지수' ... 중국 15년 연속 1위, 중동 강세

■ 산업 동향

우버, 도어대시 제소 ... 공정 경쟁 저해 및 고객 선택권 침해 주장
손보재팬, EC 반품 '리턴 플러스' 서비스 출시

■ 기술 동향

BYD, AI 모델 '딥시크 R1' 자율차 탑재
카오, 교대근무 계획 최적화 'CYTIS' 솔루션 도입

■ 정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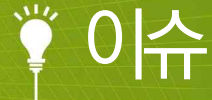
선전, '무인차+드론'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 개장
경산성, 자동배송 로봇 사회 로드맵 발표

■ 신규보고서

차세대 물류를 위한 '디지털 WMS'

■ 기관 · 행사 동향

LogiMAT China 2025 외 4건



'2025 신형시장 물류지수' ... 중국 15년 연속 1위, 중동 강세

참고 | '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2025 Index', Agility, 2025. 2. ; 'UAE shines in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', Aletihad, 2025. 2. 19.

“ 어질리티가 발표한 '2025 신형시장 물류지수'에서 현대적 공급사슬 조성을 통한 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8.58점으로 1위로 선정 ”

“ '국가물류정책'을 추진 중인 인도(6.94점)가 2위를 차지한 가운데, 인프라와 AI 및 에너지 전환, 인력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무역허브로 부상 중인 중동 국가들이 강세 ”

개요

- '2025 어질리티 신형시장 물류지수(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2025)'에서 중국이 종합 8.58점으로 인도(6.94점)와 UAE(6.31점)를 제치고 압도적 1위로 선정
 - 중국은 러시아·우크라이나, 이스라엘·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불안과 미국과의 긴장 고조 등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15년 연속 1위
 - '국가물류정책'을 추진 중인 인도와 'D33'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UAE가 중국을 추격하는 가운데,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글로벌 무역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강세
 - 본 자료는 '2025 어질리티 신형시장 물류지수' 주요 내용을 소개·분석

국내외 물류기회, 비즈니스 기반과 디지털 준비성 평가

- 물류 컨설팅 어질리티(Agility)사가 전 세계 물류기업 고위 관계자 5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요 50개 개도국 물류산업 발전 정도를 수치화, 국가별 순위를 공개 (아래 <표> 참조)
 - 평가 기준은 △국내 물류기회(Domestic Logistics Opportunity) △국제 물류기회(International Logistics Opportunity) △비즈니스 기반(Business Fundamentals) △디지털 준비성(Digital Readiness) 등 4개 부문, 각각 25% 비중

(국내 물류기회) 국내 물류시장/경제/인구(규모 및 증가), 소득 평등, 도시화, 비즈니스 클러스터 등
 (국제 물류기회) 국제 물류시장/물류집약 교역(규모 및 증가), 인프라 품질과 연계성, 통관 절차 등
 (비즈니스 기반) 규제 환경, 신용평가, 계약 이행 및 부정 방지 대책, 인플레이 및 가격 안정성, 범죄·폭력
 비용, 시장 접근성 및 정치적 안전성 등
 (디지털 준비성) 디지털 사업모델과 이커머스, 디지털 기술 및 인적 자본, 자금 조달 가용성 등

〈표〉 어질리티 신흥시장 물류지수 2025 (상위 1~25위, 10점 만점)

| 순위 | 국가 | 종합 | 국내 물류기회 | 국제 물류기회 | 비즈니스 기반 | 디지털 준비성 |
|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중국 | 8.58 | 8.58 | 9.65 | 6.37 | 8.47 |
| 2 | 인도 | 6.94 | 7.59 | 7.49 | 6.03 | 5.76 |
| 3 | UAE | 6.31 | 5.53 | 5.90 | 8.53 | 6.55 |
| 4 | 사우디 | 6.08 | 5.61 | 6.07 | 7.45 | 5.82 |
| 5 | 말레이시아 | 6.04 | 5.26 | 5.78 | 7.72 | 6.41 |
| 6 | 인도네시아 | 5.94 | 6.16 | 6.12 | 5.85 | 5.41 |
| 7 | 멕시코 | 5.77 | 5.49 | 6.45 | 5.61 | 5.25 |
| 8 | 카타르 | 5.64 | 5.36 | 4.92 | 6.97 | 6.25 |
| 9 | 태국 | 5.61 | 5.05 | 5.86 | 5.94 | 5.82 |
| 10 | 베트남 | 5.52 | 5.09 | 5.81 | 6.01 | 5.37 |
| 11 | 칠레 | 5.41 | 4.88 | 5.07 | 6.88 | 5.68 |
| 12 | 튀르키예 | 5.38 | 5.31 | 5.41 | 5.10 | 5.66 |
| 13 | 브라질 | 5.33 | 5.51 | 5.78 | 4.18 | 5.19 |
| 14 | 오만 | 5.30 | 5.06 | 4.72 | 6.72 | 5.54 |
| 15 | 러시아 | 5.27 | 5.09 | 5.61 | 4.70 | 5.43 |
| 16 | 바레인 | 5.27 | 4.99 | 4.49 | 6.91 | 5.72 |
| 17 | 요르단 | 5.18 | 4.78 | 4.62 | 7.15 | 5.23 |
| 17 | 쿠웨이트 | 5.08 | 5.07 | 4.52 | 6.03 | 5.29 |
| 19 | 우루과이 | 5.07 | 4.81 | 4.47 | 6.69 | 5.22 |
| 20 | 남아공 | 4.98 | 4.83 | 4.99 | 5.15 | 5.05 |
| 21 | 콜롬비아 | 4.97 | 4.85 | 4.97 | 5.50 | 4.76 |
| 22 | 케냐 | 4.92 | 4.55 | 4.75 | 5.34 | 5.44 |
| 23 | 필리핀 | 4.91 | 4.97 | 4.95 | 4.53 | 5.05 |
| 24 | 이집트 | 4.88 | 4.91 | 4.92 | 5.10 | 4.63 |
| 25 | 카자흐스탄 | 4.87 | 4.55 | 4.40 | 5.97 | 5.32 |

출처: Agility, '[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2025 Index](#)'

- 국내 물류기회 부문에서는 인구 및 영토 대국 중국(8.58점)과 인도(7.59점) 및 인도네시아(6.16점), 국제 물류기회에서는 제조업 강국 중국(9.65점)의 우세 속, 인도(7.49점)와 멕시코(6.45점) 및 인도네시아(6.12점) 등 중국 대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가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
- 비즈니스 기반에서는 UAE(8.53점)가 선두를 차지하고, 사우디아라비아(7.45점)와 요르단(7.15점) 등 중동 국가들이 뒤를 잇는 가운데, 말레이시아가 7.72점으로 2위로 올라 주목
- 디지털 준비성에서는 중국과 UAE 및 말레이시아가 상위권이며, 22년 7.61점으로 1위였던 인도는 24년 6.28점으로 5위, 올해는 5.76점으로 7위로 하락, 케냐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였으나 (5.43점 → 5.56점 → 5.69점) 올해는 5.44점으로 하락하며 국가별 순위도 12위로 3단계 추락
- 1~25위와 달리 26~50위 국가들은 특정 부문의 부진 혹은 선전을 발판으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급변, 모로코·스리랑카·파키스탄·방글라데시·우크라이나 등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아르헨티나·캄보디아·이란·에콰도르·파라과이 등은 상승

중국, 현대적 공급사슬 통한 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 박차

- **중국은 러시아·우크라이나, 이스라엘·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불안과 미국과의 긴장 고조 등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15년 연속 1위를 차지**
 -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에 앞서 물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, '14·5 현대 물류 발전 계획'(2022.12)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, 저장과 배송 등 물류 서비스 기능을 융합해 고도화하는 '현대 물류'를 추구한다고 명시
 - 이에 따라 중국은 산업 시설의 확대와 현대적인 공급 사슬 구축을 통해 선진 유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, 현재 도로, 철도, 내륙 하천, 민간 항공, 파이프라인의 총 운영 길이와 화물 운송량, 화물 회전량, 즉시 배송 처리 등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
 - 국가 물류에 해당하는 사회 물류 총액은 2024년 360조 위안(약 50조 달러) 정도로 전년 대비 5.8% 증가, 증가율도 0.6%포인트 상승
 - 2023년 즉시 배송 상품 주문량은 420억 건, 이용자 수는 7억 명 이상이며, 2024년 주문량은 480억 건에 이른 것으로 추산
 - 물류산업 직간접 종사 인원이 5,000만 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가동 중인 물류단지도 2,000여 개에 달하며, 국가물류중추(지역), 콜드체인 물류기지, 시범물류원구 등 물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도 물류지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배경

1) 비화석 연료로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'녹색 운송(green transport)'에 매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

- **중국은 물류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다음 사항은 개선이 시급**
 - 첫째, 서부와 농촌 지역 물류 인프라 연계망이 동부 및 도시 지역보다 크게 낙후
 - 둘째, 물류 효율이 낮고, 물류 수급의 적합성이 부족하며, 글로벌 물류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
 - 셋째, 벌크화물 저장, 긴급물류와 항공물류 등 전문 물류 시설이 태부족
 - 넷째, 물류 산업시설 체계가 미흡, 복합운송 체계 구축과 운송개체별 표준화 작업이 필요
 - 다섯째, 중앙 정부가 물류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, 부서 및 지역 간의 물류 정책 조정, 특히 다중 관리와 중복 감독에 대한 협력이 미흡
- **2025년 조사에서는 '국가물류정책'을 추진 중인 인도와 'D33'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UAE가 중국을 추격하는 가운데 특히 사우디와 카타르 등 글로벌 무역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강세**
 - (인도) △물류 정책 도입·이행 기구 설치 △관계부처 시스템 통합 △통합 물류 플랫폼 개발을 골자로 한 '국가물류정책(National Logistics Policy, NLP)'을 확정(2021.9), 2026년까지 철도,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에 100조 루피(약 1.1조 달러)를 투자할 계획
 - 편자브주와 비하르주를 연계하는 총 길이 1,337km의 '동부화물전용철도(EDFC)'는 준공(2023.11), 마하라슈트라주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연계하는 1,506km의 '서부화물전용철도(WDFC)'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다드리~사난드 등 일부 구간은 개통 완료
 - (UAE) 경제 규모를 2배 확대한다는 청사진 아래 32조 디르함(약 8.7조 달러)을 투입, △친환경 제조업 육성 △신산업 유니콘 기업 30개 확보 △청년 일자리 6.5만개 창출 △해외 명문대 분교 유치 △신기술 실증·사업화 등 10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'D33' 계획에 착수 (2023.1)
 - 글로벌 기업들이 물류 거점을 중국 이외 지역으로 다변화함에 따라 인프라·AI·에너지 전환과 인력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무역허브로 부상 중인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약진

무역 전쟁 대비 촉각

- **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물류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의 반발로 가속화될 수 있는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이 확인**
 - 응답자의 약 55%가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으며, 82%는 관세 같은 무역 보호주의가 공급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, 또한 72%는 지난 1년간 외부 위협이 증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는 등 무역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표명
 - 급변하는 지정학적 관계는 국제 무역 및 리스크 프로파일링에 커다란 영향, 물류기업들은 무역 전쟁에 대비하면서 신흥시장 내 기회와 위협에 적극 대응할 필요